

선동열·차범근·허재... 팬들의 가슴에 새겨진 '슈퍼히어로'



현역에서 물러났지만 이름은 영원히 남았다. 스포츠동아가 창간 12주년을 맞아 실시한 스포츠 전문가 100인 설문에서 선동열(야구), 차범근(축구), 허재(농구), 강만수(배구), 박세리(골프), 김연아(일반 체육·원족부터)가 종목별 최고 레전드로 꼽혔다. 스포츠동아DB

시대가 변하며 스포츠를 보는 잣대도 달라졌다. WAR(야구·대체선수대비승리기여), PER(농구·선수 효율성지수) 등 수많은 가공 기록들이 최근 선수 평가의 트렌드이지만, 전설들이 수놓은 이야기들은 이러한 기록 너머에 있다. 스포츠동아는 창간 12주년을 맞아 체육계 전문가 100인에게 자신이 속한 종목의 역대

최고 전설이 누구인지 물었다. 5대 프로스포츠와 일반 체육 전체, 총 6개 영역 전문가 100인에게 물었지만 답은 대동소이했다. 투표인단 대부분이 모두의 기억 속에 선명한 전설들을 소환했다. '무등산 폭격기' 선동열 전 감독(57)은 야구계 전문가 20명 중 9명의 지지를 받았다. 현역 시절 선 전 감독과 상대한 경험이 있는 타자 출신 A 감독은 "최고의 투수다. 더 설명할 게 없

선동열 9표·故 최동원 6표 '명불허전' 축구에선 17명 투표인단 차범근 지지 농구계 표심 절반은 '농구대통령' 허재 골프여제 박세리·배구전설 강만수 톱 일반 체육부문, 피겨 퀸 김연아 최다표

한 라이벌' 고(故) 최동원은 6표로 2위를 차지했다. 선 전 감독에게 표를 행사한 B팀 감독은 "복수 응답이 가능했다면 선동열·최동원을 나란히 뽑았을 것이다. 이들의 스토리는 영화로 담기 힘들 만큼 극적이었다"고 덧붙였다. 축구와 농구, 골프의 투표 결과는 2년 전인 스포츠동아 창간 10주년 결과와 같았다. 축구계 20명의 투표인단 중 17명이 차범근 전 감독(67)에게 표를 던졌다. 1979년 독일프로축구 분데스리가에 진출해 두 차례 유럽축구연맹(UEFA)컵 우승을 이끌었던 전설이다. 한 축구계 전문가는 박지성(은퇴), 손흥민(토트넘) 등이 있음에도 "차범근의 활약상을 이길 선수가 아직 없다"고 잘라 말했으며, 또다른 D 전문가는 "그 도전정신이 빛났다"고 회상했다.

전문가가 뽑은 '우리 종목 최고 레전드'는?

종목	레전드 1위	득표수(전체 투표수)
야구	선동열	9표(20표)
축구	차범근	17표(20표)
농구	허재	7표(15표)
배구	강만수	7표(15표)
골프	박세리	4표(10표)
일반 체육	김연아	5표(20표)

강만수 한국배구연맹 유소년육성위원장(65)의 기억을 끄집어냈다. 1980년대 국가대표 레프트로 '아시아의 거포'로 불린 전설로 15표 중 7표를 받았다. 2년 전인 창간 10주년 기념 설문에서 배구계 레전드 1순위로 꼽혔던 '여제' 김연경(역자시바시)도 2표를 받았다. 이밖에도 김호철 김세진 여오현 장윤희 등 전설들이 언급됐다. 일반 체육쪽에서는 여러 후보들의 이름이 거론됐지만, '퀸'은 역시 전 피겨선수 김연아(5표)였다. 일장기 말소사건으로 기억되는 1936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고(故) 손기정 선생과 1992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황영조 국민체육진흥공단 감독이 각각 3표, 2표를 받았다.

슈퍼레티놀
단 2주만에 주름잡다
| 아이오페 레티놀 엑스퍼트 0.1% |

RETINOL EXPERT
RETINOL 0.1%

2 weeks
고려할 고도 레티놀 농가 및
활기차게 주름 잡는 2주만에 100%

IOPE LAB

NEW

주름을 위한 당신의 노력들,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
이제, 주름보다 강한 슈퍼레티놀로
확실한 주름 개선 효과를 느껴보세요

레티놀은 아이오페

IOPE

*인 40~50세 성인 여성 대상 2019.08.16~10.17 7일간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고객상담실 080-023-5454 | www.iope.com

농구계의 표심은 허재 전 감독(55)에게 쏠렸다. 15명 중 절반에 달하는 7명이 허 전 감독을 뽑았다. "올라운드 플레이어", "다 잘하는 선수"라는 수식어가 허 전 감독의 위상을 상징한다. 골프에서도 '영원한 여제' 박세리 여자 대표팀 감독(44)이 4표로 '탱크' 최경주(50·3표)를 1표 차로 제치고 2년 전에 이어 또 한번 1위에 올랐다.

배구계는 이번 투표에서 '원조 한류스타'

'민족의 한' 달랜 '불멸의 이름' 손기정

한국스포츠가 잊지 못할 위대한 유산

1936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금메달 일장기 지운 동아일보 사진 큰 반향

결코 잊을 수 없는, 또 잊어서는 안 될 유산이 있다. 대한민국 스포츠에게 고(故) 손기정 선생의 1936 베를린올림픽 남자마라톤 금메달이 그렇다.

창간 12주년을 맞이한 스포츠동아가 스포츠 전문가 100명의 설문을 진행한 결과, 손기정 선생을 '역대 최고의 한국 스포츠 레전드'로 꼽은 응답이 많았다. 전 종목에 걸쳐 총 17표를 얻어 '피겨 퀸' 김연아(30·28표)의 뒤를 따랐다.

2002년 90세 일기에 세상을 떠난 손기정 선생은 민족의 한을 달랜 영웅이다. 일본은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금메달을 그들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역시 여전히 '일본의 것'으로 보지만 한국인들에게는 첫 번째 올림픽 금메달이었다.

그래서 당시 동아일보는 2시간29분19초 2로 경기장 결승선을 통과해 월계관을 쓴 손기정 선생의 가슴에 새겨진 일장기를 지운 사진을 지면에 실어(일장기 말소사건)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폭정을 일삼은 일제의 위협을 감수할 만큼, 손기정 금메달의 높은 가치를 인정한 것이다.

스포츠동아는 2008년 3월 24일 창간호를 통해 '역대 올림픽 최고 스타'로 손기정 선생이 뽑혔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알렸다. 그로

보 일 아 등



고 손기정 선생이 1936년 베를린올림픽에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한 소식을 전한 당시 동아일보 지면. 동아일보는 손 선생의 가슴에 새겨진 일장기를 지워 보도했다. 동아일보DB

부터 10년 뒤, 비슷한 형식의 리서치를 실시했고 또 다시 같은 응답을 받았다. 스포츠인사 100명 가운데 25명이 대한민국 체육의 '올 타임 넘버원'으로 베를린올림픽 월계관의 주인공을 꼽았다.

비록 2년 후 김연아에게 '스포츠 레전드'의 자리를 내주긴 했으나 손기정 선생이 모 든 한국인들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타오를 불멸의 영웅이라는 점에 이견을 달 수 있는 이들은 흔치 않다. 2018년에도, 또 올해도 많은 이들이 되물었다. "손기정 선생처럼 위대한 인물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나"고.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